

소비자가 머물 생활금융 플랫폼 통해 ‘융합·협업’ 촉진

포스트 코로나 금융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휴머니티·신뢰 기반 금융 이뤄야”
그룹사 포함 외부와 협업 중요
▶ 시장 중심 글로벌 비중 확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의 변곡점인 새해를 맞아 소비자가 머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는 금융의 변곡점, 그 기로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우리의 모습 또한 극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넥스트(NEXT)2030을 위해 휴머니티(Humanity)와 신뢰(Trust)에 기반한 금융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머물수 있는 ‘생활금융플랫폼’
금융권에는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금융권에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금융그룹의 2025년까지 비전 미션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이들의 변화 속도 또한 빨라야 한다고 재촉한다.

김 회장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많은 변화가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상적인 변화가 아닌 기업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손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플랫폼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과 같은 공간으로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사용자들이 몰리면 몰릴

수록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금융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경험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또 다른 사업간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공급자로 전략하기 전에 다양한 생활 플랫폼과 제휴해 소비자들이 머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이 주도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자와도... ‘협업·혁신’
하나금융은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

와의 협업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 회장은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며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 절실함이 바탕이 되어 우리 안의 사일로(Silo)를 허물고 회사 내 부서간의 협업, 나아가 그룹사간의 협업, 필요하다면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협업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은 SK텔레콤과 핀테크 기업인 핀크를 설립해 모바일 기반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또 네이버 손자회사인 라인파이낸셜아시아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라인뱅크를 내년 2월 오픈 준비 중이다.

라인 메시지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라인뱅크’는 금융사와 빅테크 간 최초의 디지털뱅크 설립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올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나금융의 글로벌 이익비중은 21.7%대다. 지난해 김 회장이 추진한 2025년까지 목표 40%까지는 미달한 상태다.

김 회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저성장 기조, 협소한 시장규모로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에서 찾아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국경은 무의미한 만큼 국내 중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상품, 프로세스, 시스템, 인재채용 등 모든 업무영역에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운영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SG전략체계도 구축한다. 김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벌어질수록 이익중요에 일부만 착하게 쓰는 것에서 착하게 쓰고, 버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영전반의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에 관한 비재무적인 요인을 계량화해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완전한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변모”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경쟁력 강화 방안 구체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강조했다.

KB금융은 지난 8일 윤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KB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 되기 전인 2019년부터 스마트 워크(Smart Work)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그룹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해 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 또한 코로나19 국가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주사 및 각 계열사의 국내외 사무실 등 60여 개 장소를 연결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윤 회장은 CEO 특강에서 “앞으로 KB는 금융회사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되 완전한 디지털 조직,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넘버원(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1년 KB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KB금융

위해 모든 경영진들이 힘을 합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끈덕지게 실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영전략회의 오전 세션은 ‘그룹 경영전략방향(R.E.N.E.W 2021)을 바탕으로 KB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과 바람을 담은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이어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1년 경영계획 공유 등을 통해 그룹의 전략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경영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

간을 가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2021년 그룹 경영전략방향 ‘R.E.N.E.W 2021’의 ▲핵심경쟁력 강화(Reinforce the Core) ▲글로벌 & 신성장동력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금융플랫폼 혁신(No.1 Platform) ▲ESG 등 지속가능경영선도(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등 5가지 주제별 경영진들의 아이디어 발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진들간의 열띤 토의를 통해 실행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그룹의 경영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상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그룹은 11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시너지홀에서 지주 창립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네번째), 권광서 우리은행장(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우리금융그룹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 비전 선포

우리금융, 그룹체제 전환 2주년

우리금융그룹이 그룹체제 전환 2주년을 맞아 지주 창립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시너지홀에서 기념식을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했으며,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고려해 손태승 회장 및 그룹사의 소수 임직원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외 그룹 임직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명사클럽 회장 및 남대문시장상회 대표 등 오랜 고객들과 우리금융에서 후원 중인 PGA 프로 임성재 선수 등의 영상 축사가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그룹에 신규로 편입한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환영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손태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체제 3년차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시

장의 평가가 더욱 냉정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 경영 효율성 제고, 시너지 극대화 등 그룹 차원의 비전에 전 그룹사가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우리금융은 이날 그룹체제 3년차를 맞아 그룹의 비전과 슬로건 등 가치체계를 새롭게 선포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이 국내 최초 금융지주 시대를 열었지만 다시 은행체제를 거쳐 민영화와 그룹체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그룹의 새로운 50년, 100년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정의할 때”라며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했다.

이외에도 우리금융은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했으며, 손 회장 역시 자회사에게 ESG경영 전략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전 임직원들이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은 키워드가 혁신과 가치였으며, ‘우리는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를 제1의 핵심가치로 삼았다”며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이라는 그룹의 새로운 슬로건을 함께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신한銀, 세계 7개국 학생 장학금 지원

총 6698명에 12억 지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하는 해외장학사업 일환으로 7개 국가 대상 초·중·고·대학생 210명에게 장학금 7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해외장학사업은 안정적

인 배움의 기회 제공과 우수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난 1997년 중국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7개 국가의 현지법인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6698명에게 약 12억여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현지의 상황에 맞춰 화상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소규모로 장학금 전달식 등을 실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은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 그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학생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후원하는 지역사회 후원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